

호남예술제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 귀국 독주회

‘신동’ 16년만의 귀향

2월 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32·전남대 강사)씨는 수창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참가했던 호남예술제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초등학교 경연 기억 생생

이때 금상을 받았던 양 씨는 이듬해 초등 저학년부 최고상을 수상했고 이후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최고상을 연속으로 휩쓸어 화제가 됐다.

“처음으로 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무대라 레퍼토리 선정에 신경을 썼어요. 18~20세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활동했던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을 골랐습니다. 각 곡들이 풍겨주는 향기를 제대로 들려주면서 청중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어요.”

호주·미국서 유학 박사학위

양씨는 바이올린을 가르쳤던 엄마 박순애(62)씨 덕분에 다섯 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접했다. 예고 2학년 때인 1991년 장학생 선발 오디션에 합격한 후 미국을 방문했던 호주 퍼즐랜드 국립음악원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양 씨는 이후 미국 신시내티 음대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신시내티 음대 예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현재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양씨는 5월에는 피아니스트 김경자(광주대 교수), 첼리스트 김창현과 트리오 공연을 할 예정이며 8월에는 모교인 칸플랜드음악원 개교 50주년 기념 초청 독주회에 참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을식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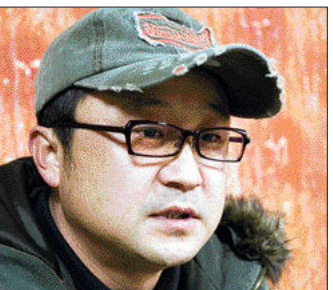
박혜강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 회장



박규상 광주연극협회장



이대유 광주국악협회장



허달용 광주민예총회장

“광주 문화 수도 함께 일구자”

광주·전남 문화예술단체 새진용...‘젊은 집행부’ 의욕적 사업 구상

2007년 신년을 맞아 광주 문화예술계 수장들의 얼굴이 대폭 바뀌었다. 신임 회장단과 집행부를 통해 새 바람을 짖는 각 단체의 올해 사업계획과 포부 등을 들어봤다.

▲문학 단체=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정을식)는 2007년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정을식)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는 2006년 1970년 당시 각 언론사 신춘문예 출신이면서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광주·전남소설문학회’로 현재 이 지역 6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정을식 회장은 “창립 당시 대저서 100여권, ‘과랑새, 마팔란 해협으로 가다’라는 제목의 작품집으로 다시 발간돼 부활의 불씨가 마련된 만큼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모임의 사단법인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앞서 지난해 말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의도 소설가 박혜강(53)씨를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뽑았다. 박 회장은 “회장을 맡는 동안 문학이 시민들과 괴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현재 우리 모임의 연중 주요행사인 ‘5월문학제’나 ‘삼진강 여름문학학교’ 등을 치를 때도 시민과 공감을 얻어두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연 단체=광주연극협회는 박규상(46·극단 Y대표)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20여년간 현역 배우로 활동해온 신임 박 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지역 연극계의 숙원인 광주시립극단 재창단 문제. 회원들이 연극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

준 높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립극단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때문이다.

특히 참신하고 의욕적인 젊은 배우 수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며 신인 연기자들의 등용문인 ‘내향연극제’를 부활시킬 예정이다.

광주국악협회는 ‘젊은 피’ 이대유(48)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금까지 국악 협회가 회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대대 해 회원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또 “누구나 인정하는 ‘국악의 고장’에 걸맞은 국악전용공연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민예총=한국화가 허달용(44)씨가 신임회장을 맡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광주지회(이하 광주민예총)는 올해 중점 사

업을 광주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각종 문화 예술 단체들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정했다.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주 민예총은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 광주에 종파도 손잡고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허달용 회장은 “13개 위원회가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부 결속력이 많이 약화된 점이 없지 않은 만큼 위원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 화합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970년 폐간 ‘사상계’ 올 8월 복간

1970년 폐간된 ‘사상계’가 올 8월 복간될 전망이다.

사상계 복간 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같은 당 정영달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함

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김삼현 전 의원,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발기인 대회에서 박정훈 전 의원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장준하 선생의 기일인 8월17일에 앞서 올해 8월 사상계를 복간하기로 했다.

사상계는 재야 운동가 박낙준과 장준하가

사재를 털어 만든 종합 교양지로 이념,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구심점이 됐지만 1970년 5월호에 김지하의 시 ‘오적(五賊)’을 실었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간됐다. 2005년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58)씨가 우선 인터넷에서 ‘e-사상계’(www.esasangge.com)를 선보였고, 그동안 복간에 뜻을 함께 하는 학계, 정계 인사, 1987년 민주화항쟁을 겪은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종이책 출간을 준비해왔다. /연필뉴스

지하철 예술무대 공연자 모집

‘문화지하철’을 지향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예술무대를 이끌어갈 자원봉사 공연자를 모집한다.

올해 문화공연이 시작되는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차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문의 062-604-8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Megatzen Day

최강로맨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에라곤

부동산 매각 공고

은행, 캐피탈, 당일 추가 대출

우리강산 KAL TOUR

노삼성자동차

전차종(LPG포함) 돈없이 사용료만 내고 탈수 있음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대지부동산

임야, 목장, 아파트

신차상당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